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6일 월요일 음 12월 8일 (조금)

기상정보

2-7℃

2-6℃

3-10℃

1-7℃

2-6℃

3-10℃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 낮 최고기온은 6~10℃로 예상된다. 저녁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다. 도로 살얼음 및 빙판길에 주의해야겠다.

해돋이 07:34

해질 17:59

달돋이 11:30

달지기 00:33

물때 만조 03:47

간조 15:34

간조 10:08

만조 22:42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대체로 흐림 2/11℃

모레 구름많음 1/10℃

월드뉴스

美 미네소타서 연방 요원 총격 사망 또 발생

“방어 사격” 해명 속 시위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이 17일 만에 또 발생했다.

이에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으로 연방 요원의 무차별 단속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경찰국장은 24일(현지시간) 유튜브를 통해 중계한 기자회견에서 37세 백인 남성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현장에서 1마일(약 1.6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사건 직후 분노한 시위대 수백 명이 현장에 몰려들어 도로를 점거하고 ICE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섬광탄을 발사하는 등 통제 및 진압 조치를 시행했다.

팀 웰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 요원들이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들을 미네소타에서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최루 가스 살포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거리.

<div></div> <div>한리일보</div> <div>제주의 대표 신문</div>	<div>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div> <div>☎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div> <div>대표전화 (064)750-2114</div>
<div>인터넷 서비스</div> <div>http://www.ihalla.com</div> <div>e-mail: hi@ihalla.com</div>	<div>광고접수 본사</div> <div>사 750-2828 / FAX 752-7448</div> <div>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div>
<div>기사제보</div> <div>750-2200 / FAX 752-9790</div>	<div>구독신청·배달</div> <div>750-2315</div> <div>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div>
<div>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div> <div>등록번호: 제주, 가00002</div> <div>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div>	

감귤묘목·포도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공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도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감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트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굴,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터도로 530 (사우실)

주문전화 010.3696.1614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백록담

위영석

뉴미디어 부국장

1980년 신군부시절 우민화 정책의 하나로 3S(Screen, Sports, Sex)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 창설을 통한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했다. 민주화 운동세대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적 시각에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국민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잡았고 당시 ‘386세대’들도 이제는 프로스포츠 흠뻑 빠져있다. 한때 민주화에 앞장섰던 언론계 한 선배는 지난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선두권을 유지하며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하자 ‘술맛 난다’는 표현을 SNS에 올리

코스타 체제 제주SK FC 2026시즌 비상 가능할까

기도 했다. 필자도 프로야구 팀 LG 트윈스를 좋아하고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왕조시대를 여는 통합우승에 성공해 팬으로서 행복했다.

프로축구는 야구보다는 열성적이지는 않지만 스포츠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제주SK를 응원한다. 그런데 제주지역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K리그1 제주SK의 지난해 성적을 보면 제주도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학구파 감독으로 알려진 김학범 감독이 팀을 맡은지 2년째였지만 중위권은 고사하고 하위권을 맴돌다 결국 K리그 2 수원삼성과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벌이는 수모를 당했다. 리그 중반에는 성난 팬들을 달래기 위해 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약을 다짐했지만 결국 김학범 감독은 시즌 도중 사퇴하고 말았다. 지난 2019시즌 최하위를 기록하며 2부로 강등

된 이후 제주 팬들에게 또한번의 치욕을 안겨준 시즌이었다.

제주SK는 2026시즌을 앞두고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과 수석코치로 활약한 지략가로 알려진 포르투갈 출신 세르지우 코스타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하고 다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제주SK는 코스타 감독이 벤투 감독과 함께 쌓아온 선진 축구 시스템 노하우와 철학을 갖추고 있고 K리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2026시즌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제주SK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 맞춰 ‘벤투호의 황태자’로 기대를 모은 권창훈과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공격수 기티스 파울라스카스, 브라질 출신 윙포드 네게바, 프랑스 출신 센터백 세레스틴을 영입하는 등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2024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른 끝에 K리그1에 잔류하는 수모를 당한 전북 현대가 거스 포엣 감독을 선임한 그때를 따라가는 듯하다. 전북은 포엣 감독 지휘 아래 지난 시즌 K리그1 22경기 무패를 달성하는 등 팀의 부활을 알리며 마침내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코리아컵 결승에서도 광주FC를 꺾고 우승해 전북은 지난 시즌 더블(2관왕)을 이뤘다. 포엣 감독을 보좌했던 정조국 코치는 지금 제주SK 수석코치다. 전북의 사례를 따라가는 제주SK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더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전북의 성과 절반만이라도 따라잡아 파이널 A그룹에서 아시안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게 제주를 응원하는 팬들의 진정된 마음일 것이다.

열린마당

공무원의 언어는 행정의 신뢰를 좌우한다

김은정

제주도의회 홍보담당관 주무관

공무원의 말 한마디, 문장 하나는 개인의 의견을 넘어 국가와 행정의 언어이며,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창구가 된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공직언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소양이다.

공직언어는 단순히 정중한 말투를 뜻하지 않는다. 법과 정책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다.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관료적인 표현은 행정을 안전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시민을 설득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감정에 치우친 표현은 공공성을 훼손한다.

만다린 무관세 시대, 해법은 기본과 협력

강형미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주무관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12년 첫 수입 이후 꾸준히 물량이 증가해 제주 만감류가 본격 출하되는 올해 3~4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다린 무관세와 관련해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외부의 수입 물량 증가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충격을 증가시키는 내부의 유통 혼란과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한 과제다. 이에 생산자, 유통인, 행정이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일부 유통 현장에서

는 수입산 물량 공세를 근거로 가격 폭락을 예단하며 농가에 저가 매입을 압박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 증가에 편승해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는 제주 감귤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눈앞의 이익보다 소비자 신뢰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농업인은 ‘완숙 출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 가격이 높을 때 출하하려는 마음에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하 적기를 지키는 것은 농가 스스로 가격 방어선을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셋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마케팅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과도한 공포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수입 동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것이다.